

신라→고려→조선 '시간여행'



◇장곡사에는 고려시대 건물인 상대웅전과 조선시대 건물인 하대웅전이 함께 위치하고 있다. 사진은 하대웅전 모습.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두 개의 구조 형식이 한 건물 내에 존재하는 귀중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건물 모두 전형적인 형식은 아니다. 상대웅전은 전체적으로 주심포계 특징이 강하지만, 기둥 사이에 간략한 포를 하나씩 더 얹어져 다포계의 모습이 가미되었다. 하대웅전은 다포계지만, 건물의 외곽은 주심포계에 가깝다. 굳이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상대웅전은 '다포적 주심포계', 하대웅전은 '주심포적 다포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 주심포 형식이 조선시대 다포계 형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상에 나타난 과도기적 절충형식이다.

건물의 내부도 큰 차이가 난다. 상대웅전 내부는 어둡고 높고 넓게 느껴진다. 천장을 하지 않고 지붕의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층고가 높고, 창문이 적어서 어둡고, 내부에는 일체 벽이 없어서 넓다. 또한, 바닥은 혼한 마루가 아니라, 전들을 깔아서 내부에도 신을 신고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모두 고려시대 주심포 법당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한 것이다. 특히 바닥에 깔린 전들 가운데는 8개 꽃잎을 가진 연꽃이 조각된 것도 발견된다. 이는 신라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며, 이 건물의 오래된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다.

반면, 하대웅전 내부에는 통상적인 마루바닥이 깔리고, 천장에는 격자형의 우물천장을 달았다. 또한 전면 모두와 옆면에도 창호를 달아서 내부는 비교적 밝고, 화려하게 느껴진다. 또한, 불상 뒤에는 탕화를 걸어서 좁게 느껴진다. 전형적인 조선시대 법당의 실내 분위기다.

상대웅전 안에는 두 부분의 석로 만든 부처님이 앉아 계신데, 한 분은 철조 약사여래좌상(국보 58호)이며, 다른 분은 철조 비로자나불(보물 174호)이다. 두 분 모두 신라 때 작품으로 추정되는 귀중한 유구이다. 또한, 부처님이 앉아 계신, 정교하게 조각된 석조대좌 역시 신라 때의 작품이다. 하대웅전 안에도 귀한 부처님이 계시다. 금동약사여래불(보물 337호)은 고려말에 조성된 것이 밝혀졌다. 고려 건물 안에 신라불상이, 조선 건물 안에 고려불상이 계신 것이다. 한 절에 이처럼 귀한 부처님들이 3분이 계신 것도 희귀한 예가 된다.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장곡사는 화엄사상에 기초한 약사여래 도량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명칭같이 상·하 '대웅전'이라는 건물 이름은 맞지 않는다. 아마도 하대웅전을 '대적광전', 상대웅전을 '약사전'이라 불렀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장곡사에 가면 상대웅전부터 참관하고 아래 절의 하대웅전으로 내려오길 권한다. 그리고 필히 법당 안에 들어가서 실내 분위기를 맛보고, 세 분 부처님을 차례로 배관하기 바란다. 건축적으로는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오는 역사적 기행이며, 신앙적으로는 신라 부처님을 거쳐 고려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 여행이기 때문이다.

장곡사 상·하 대웅전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하대웅전 다포식 조선건축

상대웅전 주심포 고려양식

바닥장식·철불상은 신라적

본 '주심포 계통' 또는 '다포 계통'이라는 양대 구조형식 중 하나로 이루어져 왔다. '포'라는 것은 건물 기둥과 지붕들 사이에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복잡한 모양의 장식적인 부재를 말하는 것이며, '공포' 혹은 '포작'이라고도 불린다. '주심포계'란 기둥 위에만 포를 올린 건물을 말하며, 다포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포가 올려진 건물이다. 주심포계 건물은 주로 고려시대에 유행했고, 다포계는 조선시대 들어서 성행한 구조형식이다.

장곡사 상대웅전은 주심포계이며, 하대웅전은 다포계에 속하는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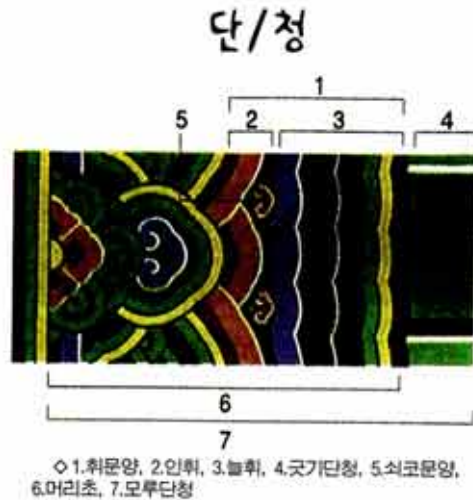
가람의 장면들

80년대 한 지방 출신 가수가 전통적인 가락과 가사를 응용한 노래를 발표했다. 주병진의 "풍발매는 아나네아....."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아직도 노래방의 애창곡으로 남아있다. 이 노래의 제목이 충남 청양에 있는 '칠갑산'이고, 장곡사는 그 칠갑산 서쪽 중턱에 자리잡았다. 칠갑산은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지만,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장곡사는 명산에 있는 관광사할 정도로 여겨지기 쉽지만, 한국 건축사상 중요한 두 개의 건물을 한 장소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가람이기도 하다. 이 절은 특이하게도 두 개의 사찰로 이루어졌다. 경사지에 자리잡아 작은 마당을 중심으로 누각과 승방, 그리고 법당으로 이루어진 아랫 절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급한 계단을 50m 올랐다가 더 하나의 사찰이 자리잡고 있다. 이른바, '상대웅전'이라 불리는 법당과 웅진전이 나란히 서있다.

아래 위 두 법당은 각각 '대웅전'이라는 현안이 달려있어서, 한 절에 두 개의 대웅전이 있는 기이한 모습이다. 편의상 아래 법당을 '하대웅전', 위 법당을 '상대웅전'이라 부르기로 하자. 두 건물은 얹은 방향도, 조성된 시대도 다르다. 상대웅전(보물 162호)은 고려말에 건축된 것으로 동남향으로 앉아 있으며, 하대웅전(보물 181호)은 서남향이며 조선 중기의 건물로 추정된다. 이 절은 신라 하대인 850년 보조국사

불교조형물에 나타난 전통문양



◇1.휘문양, 2.인취, 3.늘취, 4.꽃가단청, 5.쇠코문양, 6.머리초, 7.모루단청

■ 청 ■ 적 ■ 황 □ 백 ■ 흑 오방색 사용



◇승광사 부연, 서까래의 단청

가람 장엄하게...화려하게...

불교건축의 천장, 처마 밑, 기둥등에 화려하게 그려진 단청은 건축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더할 뿐 아니라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고, 병충해 등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청은 청 적 황 흑 등 다섯가지 색을 기본으로 사용해 목조 건축물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다. 좀더 넓게는 조각 형상이나 공예품 등에 채화하는 것과 서, 회, 화의 개념을 통틀어 의미하기도 한다. 불교 건축물에 표현된 단청은 불전을 장엄하고 아름답게 장식하여 신성한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단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마다 다양한 문양들이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레바퀴 모양으로 그려진 비단무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물레문양.

■머리초문양=처마아래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 있는 광방과 창방, 도리 등의 부재 양끝 모서리에 그려 넣은 가장 주가 되는 문양이다. 시대와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녹화, 연화, 주화, 장구머리, 벌머리 등을 배열한 다음 몇 가지의 색깔 띠로 나누어 채색하는 휘문양을 붙이는 것이 기본형식. 문양의 생김새에 따라 머리초, 온머리초, 반머리초, 연화머리초, 녹화머리초 등 다양하다.

■휘문양=몇 가지 색채를 나누어 채색한 것을 말한다. 가운데 주문양이 배치되고 가운데 문양과 바탕사이를 잇는 오색의 띠가 겹겹이 둘러지는데, 그 생김새에 따라 이름이



◇연화머리초문양

다르고 무늬 밖으로 간지를 하여 전개되는 휘가 있어 이 또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운기문양=점점으로 흩어진 구름모양을 나타낸 점문, 흘러가는 구름모양을 나타낸 유문, 솟아오르는 구름 모양을 도안화하여 나타낸 운문, 둥게뿔이 피어나는 모습을 나타낸 풍문, 구름형상을 만자모양으로 도안화한 완자문, 구름 머리를 보살모양으로 도안화 한 보문 등이 있다.

단청에는 이외에도 연꽃, 모란, 국화, 보살화, 만다라화 등 꽃문양을 비롯해, 원, 직선, 타원 등을 이용한 기하학적 문양과 상상의 동물인 사신, 시령 등의 문양. 기둥 위쪽에 그리는 주외초문양, 천정의 반자에 그리는 천장초문양, 서까래, 부연, 개관 등의 마구리에 넣는 부리초문양 등이 있다.

부석사 조사당의 단청은 고려의 단청으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인데, 후세에 여러번 덧칠하였다. 수백사 대웅전에는 건립 당시에 그려졌던 벽화를 비롯, 여러 단청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채색과 선이 밝고 부드럽게 표현돼 있다. 또 봉정사 극락전의 단청은 지금에 많이 퇴색되었지만 조성 당시의 장엄함과 화려함을 전해준다.

이은자 기자(ejee@buddhapia.com)

MAHAMALL

108나한단주

· 신송이씨를 조곡한 100% 수궁에 직접
· 임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곡된 있음
(18알 x 6나한=108나한)
· 오래 소지할 수록 향력이 나며, 그 향기가 더해집니다.
· 고급케이스에 담겨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 수직입으로 정성되어 직접 조곡한 만주
· 자질 : 복숭아씨

가격 : 20,000원 (고급 케이스 포함)

설악 상황버섯

● 상황버섯이란?
오래된 불나무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불나무 버섯으로 설악 상황버섯은 기존의 여러 농가에서 흠잡으로 채취한 버섯과 달리 건강에 좋은 현미에 배양 재배하므로 버섯의 자실층과 균사체 전부를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상황 효능 / 효과
1 항암효과 - 면역체계를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암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2 예방작용 - 초기암의 증식방지를 효과, 특히 수술후 재발방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3 항염작용 - 고혈압에 대한 심장적 효과가 탁월합니다.
4 상순작용 - 화학요법제 투여나, 방사선요법과 병행하면 이상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5 안정작용 - 기존의 항암치료제와는 달리 탈모증, 고통스러운 부작용이 전혀 없으므로 장기복용에도 절대 안전합니다.

· 내용량 : 340g (170g x 2팩) · 원산지 : 강원도 속초
· 원료명 : 현미상황 100% (국산)
· 가격 : 135,000원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 상품설명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상적지향 인진쑥이 여러종의 고장 강원도 정선산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眞眞草)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압식에서 2시간 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 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조합 식공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 상황 효능 / 효과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부를 윤기있게 해줍니다.
3 피를 맑게 해 줍니다.
4 손, 발이 차가운 자민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5 오장유무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6 당뇨병 7 신경통

· 내용량 : 80g x 60포 · 원산지 : 강원도 고성산
· 가격 : 175,000원 (2개월분)

포온열 건강벨트

● 상품설명
포온열 건강벨트는 건강회복, 통증, 취침, 기능원 터치로 가능하며, 원하는 온도조절(36.5°C~70°C까지)가능 그리고 매직벨트로 처리되어 허리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동의대학교 한방생리학 연구팀과 한의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2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피로회복, 취침, 통증 등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휴대가 간편하며 외출과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이런 분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장미 약학실험, 소화불량자, 생리통 여성, 운전자, 수험생, 군인, 비만자, 산모, 배앓이, 연세드신 부모님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책 충전기 / 밧데리 (휴대용구입시)

색 상 - 검정, 그린, 베이지
가 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투명꽃 5인 다기세트

● 상품소개
무아한 빛깔과 곡성이 느껴지는 전통다기 세트입니다. 차일을 우려내는 다관, 향수를 식히는 사발, 속주, 차를 따라 마시는 찻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격 150,000원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

● 상품소개
스텐드형 · 규격 43x23x2.8cm · 무게 1.8kg · 가격 97,000원
역자형 · 규격 69x43x3cm · 무게 4.9kg · 가격 107,000원